

돌에 그림 그리는 권용택 화백… 돌과 말하다!



권용택 이향재 화백 부부

돌이 뜨고 있다. 산에 파묻혀 있던 돌이 뜨고 있다. 질풍노도의 80년대와 90년대를 운동으로 부딪히다 수원 인권영화제 사건 연루로 2000년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던 권용택(주밀공파, 35세, 53년생) 화백이 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재탄생시킨 돌이 뜨고 있다.

며칠 전 어느 어르신으로부터 돌에 그림을 그린다는 화가가 TV에 나왔는데 안동권씨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는 전화가 왔다. 8월 21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수요일. 강원도 평창면 진부 철철산중 깊은 골짜기에 은거하며 ‘돌에 그림을 그린다’는 권용택 화백을 만나러 나섰다. 청량리에서 ktx를 타고 진부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잡아탔다. 권용택 화백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택시 운전기사가 아 그분이요 도회지에서 살다 두 메산골 산속에서 사는 것만도 대단한데 부부가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진부(珍富)는 이름 그대로 땃목을 한강으로 나르는 길목이라 땃목장사로 한몫 잡은 부자들이 옛날에는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농사밖에 지을게 없고 다른 산업시설이 없단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 아이들도 몇 명 없다고 한다. 정말 큰일이라며 농사짓는 일꾼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할 지경이라고 걱정했다. 하루 일당은 남자는 15만원이고 여자는 13만원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돈은 외국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푸념했다. 택시가 산길에 접어들자 여긴가요 했더니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한다. 다 왔나요 하면 비탈길도 오르고 구불구불한 고개길도 넘어야 한단다. 그야말로 산속의 산속의 산속으로 약 3km를 들어가서야 권용택 화백의 ‘하오개 그림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권행완 편집국장(이하 국장) :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삶 생각을 했나.

권용택 화백(이하 화백) : 올해로 25년째 살고 있다. 1998년에 땅을 구입하고 2000년에 이사했다. 수원에서 유신고등학교 미술교사를 8년 만에 그만두고 미술학원을 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바뀌는 시절인데 지역에서 인간의 권리로 유린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고서 그동안 준비한 영화제에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인터뷰 다큐멘터리 〈레드 헌터〉를 상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화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보과 행사가 현장에 있으면 체포되어 구속되니 자리를 피하고 일러졌다. 어찌겠는가. 도망치듯 아래와 함께 친구 집에 들렀다 이 곳 평창에 와서 1주일 만에 돌아갔는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다시 집에 간다면 주위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또 일을 맡힐 것 같고, 맡기면 나 몰라라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또한 그림도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른 길도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하고 이 곳까지 오게 되었다.

국장 : 오다보니 군데군데 집이 보이고 산으로 들어오는 초입부터 산길 같지 않고 잘 닦여 있던데 원래 마을이 있었나.

화백 : 다 별장이다.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지은 별장이다. 길은 제가 이장을 4년 하면서 만들었다. 길을 트기 전에는 4km를 돌아서 왔다. 여기는 산이 밭이다. 나도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3년 만에 포기했다. 밭에 돌이 많아 트랙터 날이 부러질 정도다. 농사 안 지으니 밭이 산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백석산과 오대산 등에서 풀꽃 씨앗을 받아오고 식물도 옮겨와서 잡초도 뽑고 가꾸니까 지금은 자생식물원이 되었다. 풀꽃은 400여 종이나 된다. 한국에만 있는 토종이다. 주변에 고랭지자생식물원이 많아서 씨앗 받으러 오기도 한다.

국장 : 복잡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사람들을 피해 산속에 오신 분이 마을 이장을 하셨네요.

화백 : 2006년 평창이 큰 수해로 길도 매몰되고 인명피해도 있었다. 평창군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다. 농사도 다 놀려가 버렸다. 이때 복구를 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편성 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 들었더니 마을사람들이 마을 이장을 주대했다. 그 덕분에 이장을 4년 했다. 그림도 단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참여미술로 미술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미술운동을 한 것이다.

국장 : 산속에 와서 더 유명해진 것 같다.

화백 : 하하. 1979년에는 프랑스 르 살롱 전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1995년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전승 50주년 기념전시회로 주최한 ‘정의 평화 국제 미술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 수원시 문화예술상 수상, 2016년 평창군민대상을 수상했다. 제가 그린 돌그림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5점, 수원미술관에 5점, 오산미술관에 5점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에는 돌그림 덕분에 한국기행, 아름다운 귀촌 등 다큐멘터리에 10회 정도 나왔다.

국장 : 어떻게 돌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나.

화백 : 어느 날 캔버스가 떨어졌다. 일반도로가 해발 380m이고 우리 집은 해발 680m에 위치해서 집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이다. 그냥 돌밭이다. 10년 넘게 그 돌들을 주워다가 돌탑을 쌓기도 하고 돌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흙 반 돌 반인 백석산 여기저기에 굽리나니거나 밭가에 쌓인 돌무더기 속에서 눈길을 끄는 돌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은밀히 말을 걸어왔다. “나는 처음에 큰 산 바위였지요. 지금은 밭에 채이는 하찮은 돌멩이일지도라도” 내가 돌에게 대답했지요. “그래 너는 나를 통해 다시 바위가 되고 큰 산이 될 수 있어”라고 비바람에 깨이고 굴러 깨진 돌과의 대화 속에서 백두대간 겹겹이 굽이치는 산이며 깊은 산속 폭포, 작은 계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장 : 돌의 표정을 어떻게 포착하여 읽어내나.

화백 : 어느 날 딱 느낌이 온다. 너는 돌도, 너는 오녀산성의 출본성, 또 너는 백두산 천지, 그 옆의 너는 우리 동네 들어오는 길, 길 건너 너는 설악산, 바위에 기대고 서있는 너는 네팔 안나푸르나봉 등 각각의 돌마다 표정이 보인다. 돌이 담고 있는 역사와 세상의 표정이다. 금강산 만물상 같은 표정을 한 돌을 비롯하여 수많은 돌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자기 형상대로 그려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다. 원래의 돌 표정에서 이미지를 끌어내기 도 하고 때로는 만들어 내기도 하며 두 가지 방식 다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화백은 ‘하오개 그림터’ 전시실이자 작업실로 안내하여 돌과 출본성과 안나푸르나봉 등 작품 한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국장 : 돌에 그리면 1000년은 같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화백 : 제일 좋은 방안은 작품을 평창군에 기증하면 평창군에서 미술관을 건립하여 보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방안이 어렵다면, 현재의 집터에 건물을 지어 아들들이 작품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돌의 표정은 돌의 역사이다. 돌의 역사는 곧 자연의 역사이다. 돌 그림은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생각하게 한다. 권용택 화백의 생태미술이 탄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권용택 화백은 고향이 완도 청산도이다. 권태순(33세)씨의 손자이자 권은준(34세)씨의 아들이다. 풀꽃을 좋아하는 부인은 이향재 화백이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파독간호사로 파견되었다 돌아와서 권용택 화백과 화족을 밝힌 후 식물과 대화하는 생태미술 화가로 거듭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큰 아들 혁빈과 작은 아들 혁일 역시 미술을 전공했다. 가족 모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셈이다. 유전자는 어



하오개 그림터



돌도. 돌에 그림을 그리고 캔버스에 돌그림을 붙였다.



백두산 천지



월출산



하밀라야 안나푸르나봉

쩔 수 없나 보다.

권 화백은 안동권씨 평창종친회 회장을 2년 역임했고, 지금도 회원끼리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평창미술인협회 회장 10년, 오대산천산나물축제 초대위원장, 평창송어축제 홍보국장 10년, 전국환경미술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 왔다.

또한 진부문화예술작자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 센터장으로서 전시를 기획하여 1년 내내 전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군민을 대상으로 미술지도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상담하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대문이나 담 등에 아내와 함께 벽화를 그려주기도 한다.

부인 이향재 화백은 5일장으로 진부장이 열리고, 산골이지만 광케이블도 깔려 있어 인터넷도 되며, 우편물도 우체국 택배도 다 배달된다. 다만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것 말고는 살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다.

인간 문명의 시원은 바위그림인 암각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츰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권용택 화백이 산기슭에서 새로운 생태문명의 돌을 발견하고 고대인처럼 다시 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돌그림이 기후 변화로 뜨겁게 달아오른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겁기만 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이치대첩 승전기록

이치는 전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로 배(梨)나무가 있는 고개(峙)라는 뜻의 우리말로 배티라 불렸다.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나라를 구한 승리의 전투가 이치에서 있었다. 권율 장군이 1,500여 군사를 이끌고 결전을 벌인 끝에 적을 섬멸한 이치대첩은 행주대첩, 전주대첩보다 앞서는 임진왜란 최초의 육지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다.

1592년 7월 중순 금산을 점령하고 있던 2만여 명의 왜군은 마침내 전주로 넘어가기 위해 진산을 지나 이치로 향한다. 광주목사 권율장군은 동북(전남 학순) 현감 황진장군, 비장 위대기, 비장 공시역, 기병장 권승경 등 1500여 장졸과 함께 이치에 진을 치고 적들을 막기 위해 이치 고개의 힘준한 굴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곳곳에 목책(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과 녹채(鹿砦, 대나무를 세워 사슴뿔처럼 만든 울타리)를 세워 방어진을 구축하고, 조총의 공격으로부터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女牆, 성이나 바위 위에 낮게 보태어 올린 담)도 쌓고 나무 사이와 통로로 요소등에 거마(拒馬, 둉근 통나무에 창을 박아놓아 적군 기병의 진격을 막는 방해물)와 철질려(鐵蒺藜, 서너 개의 발을 가진 쇠못)를 깔고 함정도 파고 왜적을 기다린다.

왜적은 금산까지 오는 동안 연전연승을 한 데다 조선군과는 군대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으므로 기세등등하게 이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왜적은 금산까지 오는 동안 연전연승을 한 데다 조선군과는 군대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으므로 기세등등하게 이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권율장군이 장졸들을 향해 “오늘 이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한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어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

골짜기 가득찬 창검 부딪히는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말 울음소리는 10리 아래 상가리 금곡에서도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철저했다.

전투 중 분전하던 선봉장 황진장군이 적의 조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며 수세에 몰리자 권율장군이 크게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서며 전투를 독려하자 다시 아군의 사기가 충천해졌고, 이윽고 적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퇴하던 왜적들은 북산리 서북쪽 영정곡(태고사 삼거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병장 권승경의 복병에게 또다시 최후의 일격을 당해야 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 가장 불리했던 위기 상황에서 호남으로 진격하던 왜군을 막아내어 호남을 지키고 조선을 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다.

장호 금산문화원장

이치대첩 기념제 이모저모



권세환 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헌화 분향



권오돈 회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중달 교수 등 헌화 분향



1970부대 용사들의 조총 발사



공명아우라의 승전 기념 공연. 공명아우라는 금산에 사는 평범한 사회인들로 국악이 너무 좋아 국악에 빠진 금산을 대표하는 여성 단체팀이다.



700의총 앞에서 이치대첩 기념제에 참석한 후 금산 칠백의총[錦山七百義塚]을 참배했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조헌, 고경명, 영규 대사(靈圭大師) 등 의사(義士) 700명의 유해를 합장한 700 의사의 무덤이다. 1592년(선조 25) 8월 1일 조헌(趙憲)의 의병과 영규(靈圭)의 승병이 합군하여 청주성을 수복한다. 뒤 이어 8월 18일 남은 700인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진격,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의 마강한 왜군과 혈전을 벌여 전원이 순찰하였다. 사적 제105호.

의사(義士)와 열사(烈士)

의사(義士)는 의(義)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의사(義士)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친 안중근(1879.9.2~1910.3.26.) 의사와 윤봉길(1908.6.21~1932.12.19.) 의사가 대표적이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암살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 축하 행사장에 참여하는 일본 상하이파견군 대장 등에 도시락 폭

탄을 던져 대한 남아의 기개를 떨쳤다. 그래서 의사의 무기로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열사(烈士)는 나라를 위하여 이해(利害)나 권리에 굽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장렬하게 싸우며 절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유관순(1902.12.16~1920.9.28.) 열사와 수많은 순국열사가 있다. 유관순